

기계를 구입할 때는 가능하면 여러업체의 제품 모델과 특, 장점을 살펴본 후 물건을 사게 된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 제품을 골라야 후회도 적은 법이다. 그러나 어느 업체가 있는지, 어떤 제품이 나오고 있는지를 일일이 알아보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소개받은 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기계별로 어떤 업체에서 어떤 모델이 나오는지를 연재한다. 또 회사소개와 A/S기간 및 인원을 덧붙일 계획이다. 여기에 소개되는 제품은 각 사의 주력품목들이며 이달은 쇼케이스부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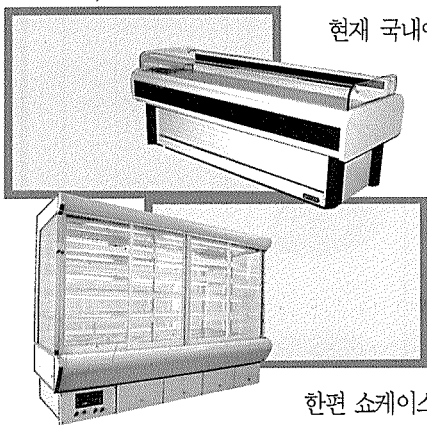
기계를 구입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기능이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구입한다면 냉장고로서의 기능인 냉장기능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놓고 판단한다. 냉장고의 역할은 제품을 신선하게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후 부차적인 기계의 서비스 기능을 살펴보고 디자인, 가격, A/S를 얼마나 잘 해주는가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기계 고유기능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오히려 이러한 기능은 기계를 써본 후에나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주변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냉장고는 어느 가전사 제품이 좋고 세탁기는 어디, TV는 어디가 좋다는 식의 신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기도 하다.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기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과 기술인들은 주변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계를 선택하거나 자신이 어느 회사 제품을 써봤는 데 좋았었다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너무 주관적이다. 따라서 기계를 써보기 전까지는 기능을 알기 어렵지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면 쇼케이스를 구입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은가. 우선 쇼케이스는 냉장고와 진열대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제과점 인테리어와 어울리는가를 봐야한다. 또 냉장성능에서는 온도세팅후 얼마나 빨리 그 온도로 떨어지는가, 유지되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전국 쇼케이스 생산업체 및 품목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쇼케이스는 라운드형과 벽면형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3단형 라운드 쇼케이스가 일반적이었는데 비해 최근 3~4년전부터는 벽면형 쇼케이스가 많이 팔리는 추세다. 벽면형은 좁은 매장에서 많은 제품을 진열, 전시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디자인을 고려해 벽면 쇼케이스의 전면부를 라운드 형으로 만들어 곡선미와 현대적인 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라운드 쇼케이스의 문을 앞쪽에 두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고르게 하는 모델이나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 많이 팔리는 추세를 감안해 쇼케이스와 평대 쇼케이스를 합한 기능적인 제품도 신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한편 쇼케이스의 보온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우레탄을 보온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우레탄을 사용했다고 해서 보온력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쇼케이스 내부의 냉기가 밖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밀도가 조밀한 보온재를 사용하는 데 우레탄 중 질이 낮거나 마감이 갈끔하지 못해 틈새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냉손실이 많다는 것이다. 또 쇼케이스는 유리로 이뤄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부 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어떤 내부자재를 사용했나를 단순히 비교하기 보다는 쇼케이스의 온도 세팅후 얼마나 빨리 온도가 떨어지고 유지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빠른 시간에 온도가 떨어져야 쇼케이스 수명이 연장된다. 온도가 떨어지는 시간이 늦을수록 기계는 그만큼 더 돌아야하고 이것은 기계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쇼케이스 냉각방식에는 상향과 하향이 있다. 상향은 아래에서 위로 바람이 불어 냉이 순환되는 것이고 하향은 위에서 아래로 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쇼케이스의 단수가 많은 5단의 경우에는 하향방식을 택하고 단수가 적은 3단은 상향방식을 택한다. 이는 상향방식은 냉기를 위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데 단수가 많을 경우에는 끌어올리는데 기계에 무리가 가고 온도 편차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본사의 지명도, A/S 기간 및 인원, 얼마나 빨리 A/S가 되는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쇼케이스 업체에서는 기계하자가 대부분 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A/S 요청이 있어 현장에 나가보면 단순히 청소를 해주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일년에 한번 정도는 쇼케이스 바닥을 열고 쌓였던 먼지를 제거해 주면 기계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본지에 게재된 업체별 제품 특징은 각 사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2]